

## 수도권 집값 겨냥한 '부동산 대책'

# 애꿎은 지방 서민들만 피해

### 내주 주택대출 규제...시중銀 잇따라 금리인상

폭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애꿎은 지방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읊들어 '3·30 대책' 등 15개월 사이에 수도권 집값안정을 명목으로 3차례나 부동산 안정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만 위축시킨 상황에서 또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총량 제한 등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지방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2·4·11면〉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대책

회의를 갖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대책 세부내용을 다음주 초 발표하기로 했다.

그나마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금리를 동결하고 이성재 한국은행 총재가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오르기 시작해 지방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물론,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하나, 국민, 신한, SC 제일은행과 농협 등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이 8일 집값 전격로 깎아주던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형태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안정을 꾀할 방침이어서 대출 받기도 어렵게 됐다.

더구나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출 금리 인상 속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방 서민들만 잡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만 보더라도 2004년 12월 대출잔액이 3천16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5천260억원으로 66.2%나 증가한 것

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10월 말 현재 대출잔액이 7천374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0.2%인 2천114억원이나 급증했다.

대출금리도 지난해 말 연 5.74%에서 올 10월말 6.31%로 0.57%가 올라 1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10개월만에 연간 부담액이 60만원가량 늘었다.

은행대출 1억원을 받아 광주 수완지구에 2억원대의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여·42·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는 "결혼 15년만에 은행에서 빚을 내 내집 마련을 했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 아파트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면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지방의 애꿎은 서민들만 잡고 있다"고 불평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내일 폐막

'열풍 변주곡'(Fever Variations)을 주제로 지난 9월 8일 개막한 2006 광주비엔날레가 65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는 11일 폐막한다.

〈관련기사 15면〉

올해 창설 12년째를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을 본 전시를 통해 선보임으로써 아시아권 선두 비엔날레로서 입지를 굳건히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회 대회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관람객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비엔날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현재 관람객은 모두 66만6천952명으로 전기 대회 같은 기간 50만1천240명에 비해 33%(16만5천712명) 증가했다.

폐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 광주비엔날레 주 전시관 일대에서 열린다. 폐막식은 '빛', '영상', '퍼포먼스'를 주제로 열리며, 비엔날레 전 과정을 담은 영상물 상영에 이어 비엔날레 발전을 기원하는 풍등(風燈) 날리기 행사 등이 진행된다.

연경기자 penfoot@kwangju.co.kr

## 靑 "거국내각 조건부 수용"

### 제안했던 한나라당 즉각 거부

9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여야간 합의가 있다면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거국내각 구성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9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혼들기에만 몰두하면서 주요 국정과제 처리가 방기되고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정상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거국내각이든 관리내각이든 여야 대

표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한 거국내각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야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도 여야가 내각 구성에 대해 합의를 한 후(청와대에)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정부 여당은 민생과 이데올로기를 분리하지 못해 경제문제를 소홀히 했다"며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을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핵실험 한 달, 지금 평양은

☞ 끝까지 않은 '고난의 행군'



대동강변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대형 건물군들. 92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류경호텔이 피라미드 형태의 뼈대 형태로 세워져 있다. 평양 방문객들은 류경호텔을 '유령호텔'이라고 부르곤 한다.

# "1人3役" 살아남기 안간힘

## 공사중단 '류경호텔' 경제실패 단면

### "산이 왜 헐벗었느냐" 질문에 "..."

평양=김주정 기자

북한에 가면 북측 당국이 숨길 수 없는 골치거리 물을 볼 수 있다. 평양에 있는 '류경호텔'과 전국에 산재한 '민둥산'이다. 북측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차에서 사진을 찍거나 내리지도 못하게 하지만, 이 두가지 골치거리의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지난 5일 아침 평양 남세운실 준공식을 위해 숙소인 대동강 '량각도 국제호텔'을 나서자 맨 처음 눈을 끄는 것은 323m 높이로 치솟은 콘크리트 피라미드였다. 버드나무가 많아 '유경(柳京)이라고 했던 평양의 옛이름을 딴 '류경호텔'이다. 105층인 이 건물은 지난 1987년 프랑스 기술과 자본으로 착공한지 6년만인 92년 공정을 6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4

억달러 이상의 외화과 연인원 1만 명이 투입됐으나 예산과 노동력을 추가 확보하는데 실패, 착공 20년 이 다 되도록 유령처럼 도시에 서 있었다.

류경호텔의 공사중단 시기는 90년대 중반 3년간 계속된 '고난의 행군' 시기와 겹친다. 북한정권이 김일성 주석 사후 '유훈(遺訓)통치'에 의존해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자력갱생(自力更生)을 외친 결과 300만명의 아사자(餓死者)를 낸 시기다.

서해감문과 묘향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주변에서 만난 민둥산들도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 실패사례 가운데 하나다. 북한 정권은 1976년 '쌀은 공산주의다'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경사 60도 이하의 모든 산을 계단밭으로 만드는 자연개조 운동을 펼친다. 하지만 자연을 개조한 '공산주의'는 쌀을 만들

지는 못했다. 홍수는 인민들의 문전옥답을 망쳐버렸고, 식량 뿐 아니라 빨감마저 빼앗아 갔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야 나무심기에 나서고 있지만, 아마저도 여의치 못한 지 민둥산 자락의 수해 피해는 심각해 보였다.

물론 이같은 경제 실패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에 돌려진다. 북측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국제교역이 막혀서라고 주장한다. 석탄도 부존자원이 아직 많은데, 무역제재 때문에 낡은 굴착기계를 교체하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로 다른 나라와 교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호텔을 짓는 것은 무리였습네다."

북측 당국자 A씨는 더 이상 말하기 싫은 듯 간단하게 설명하고 외면해버렸다. 대동강 하구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서해 감문'을 자랑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왜 저렇게 산이 헐벗었느냐"는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2면으로 계속〉

jinews@kwangju.co.kr

후원기관 장학55년 역사만큼  
**남부대학교**  
www.nambu.ac.kr  
신입생 모집 062-270-1114 / 062-270-5001-2  
새로운 담겨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inam.ac.kr  
신입생 모집 062-270-1114 / 062-270-5001-2

대한민국 국가정보  
TEL: 02-777-0000 FAX: 02-777-0000  
대한민국 국가정보  
TEL: 02-777-0000 FAX: 02-777-0000  
국내 최고 권위의  
물가전문지

**이승철** 광주공연  
12월 16일(토) 오후 7:30 광주염주채육관  
광주일보사 (062)220-6541, 1544-1216

**ALL LASH MASCARA**  
LANEIGE